

# 나눔터

펴낸곳: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 펴낸날: 1995년 3월 31일 / 계간발행 / 주소: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45호(우. 137-600) / 전화: 02)576-7127~8



우리 사회 성문화 어디까지 왔나?  
특집좌담회

## 차례

여는글 .....	2	여성계 소식 .....	11
신임 대표이사에게 듣는다 .....	3	연재기획 : .....	12
95년 사업 계획 .....	4	직장내 성폭력, 알고 예방합시다 ①	
이런 일을 했습니다 .....	5	철학적 성 이야기 .....	15
여기는 상담실 .....	6	여성과 몸 .....	16
특집좌담 : .....	8	성문화 읽기 .....	18
우리 사회 성문화 어디까지 왔나?		나눔터 알림판 .....	19



## 또 하나의 꿈을 키우며



최영애  
(본 상담소 소장)

**모** 든 살아있는 생명이 기운을 더해가는 4월이다. 상담소가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든든한 터, 성폭력 없는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터를 닦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출발한 지 어느덧 4년이다.

흔히 여성들은 현실을 모르는 이상론자 혹은 꿈을 먹고 사는 사람들로 폄하되곤 한다. 그러나 나는 여성들의 꿈꾸기야 말로 새로운 미래를 창출해내는 원동력임을 상담소 활동을 통해 체험적으로 확신한다. 성폭력상담소는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는 여성들에 의해 시작 되었고 그들에 의해 채워져 있다.

그리고 이 꿈에 대한 확신은, 조그만 사무실 하나 얻을 정도의 돈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단지 열정 하나만으로 상담소 문을 열 수 있는 용기를 주었고 거의 한해 한번씩 이사를 가야하는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넓어지는 사무실을 갖는다는 것만으로 가슴벅차하는 애정을 지속시켰다. 또한 7700여회 피해자 상담을 한결같은 열정으로 임하게 하고 설새없는 재교육 훈련을 감내하게 했다. 그뿐 아니라 위기센터를 개소 2년만에 설립하고 그후 1년만에 또 다시 피해 여성들에게 피난처 제공과 심도깊은 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열림터 개설 등의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폭력 없는 사회, 여성의 자유로운 삶에 대한 꿈꾸기를 멈추지 않은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워 놓은 꿈들이 하나씩 이루어질 때마다 벅찬 감동으로 가슴떨려하는 기쁨이 있기에 새로운 꿈꾸기를 멈추지 않았다. 또한 우리의 꿈꾸기는 소수 여성에서 뜻있는 남성으로까지 확대되고 그 수는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현재 상담소는 상담원, 위기센터 지킴이, 사무 업무를 돕는 나눔이, 의료·법률·상담·연구 등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 상담소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회원, 후원 회원들이 거의 5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연령과 계층, 학력의 격차를 뛰어 넘어 서로를 10년 지기 처럼 믿음직스러워 하는 것은 오로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 이라는 동질성 때문이다.

이제 상담소는 성폭력 전문 상담 기관으로서의 위상과 그 틀을 갖춘 셈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또 새로운 꿈꾸기를 시작해 보려고 한다. 우리 사회의 거대한 남성 중심적 성문화를 변화시키고 인간 중심적 성문화 창출의 터를 마련하려는 꿈이다. 성 문제를 현장에서 풀어나가는 상담소, 구체적 현실을 기초로 원인과 대안에 대한 이론적 틀을 세우며 새로운 성문화 창출을 위한 연구소, 이러한 결과물을 효과적으로 알려낼 수 있는 출판 기관,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실시,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 훈련원 등이 한몸을 이루는 종합 센터를 세우려는 거창한 꿈이다. 성에 관한 다양한 영역에서 성에 대한 하나의 통일된 관점으로 총체적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 새로운 문화 창출의 물꼬를 트는 터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그래온 것 처럼 종합센터 설립에의 꿈꾸기를 먼저 시작하려고 한다. 꿈꾸기는 모든 새로운 것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첫 작업으로 상담소의 95년, 올 한 해 사업 목표를 「성폭력 예방과 올바른 성문화 정착」으로 잡았다.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적극적 대안으로 국민학교 양호교사와 상업고등학교 상담교사 대상의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려고 한다. 또한 우리 사회 성문화의 현주소와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 성문화 실태조사와 가해자 연구를 시작하고, 청소년 성폭력 예방 비디오, 직장내 성폭력 예방 비디오를 만들 예정이다. 이 모든 활동은 새로운 성문화 창출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며, 이러한 활동들을 토대로 우리들의 종합센터 설립의 꿈이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유

## 이제는 터를 넓혀야 할 때



박금자  
(본 상담소 대표이사,  
박금자산부인과 원장)

상담소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 의료적 지원과 조언으로 상담소의 큰 부분을 담당하셨던 박금자 선생님을 찾아 보았다. 대표이사로서의 소감과 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더욱 무거워진 '어깨'를 보이시며 웃으신다. 하지만 말씀하실 때의 깔끔하시면서도 조직적이고 야무진 태도에서 자신있게 사는 여성의 '부드러운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에 상담소의 대표이사가 되셨는데, 소감은 어떠하신지요?

제가 처음 상담소를 알게된 것은 아주 우연이었어요. TV방송 녹화 현장에서 상담소에 다니시는 선생님 한분을 만나게 되어 성폭력 상담소와 인연을 맺게 되었지요. 그 뒤로 상담소에서 일을 쫓 해왔었기 때문에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게 사실이에요. 열심히 해야지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상담소 발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의료 자문위원이니까 자문위원 일을 열심히 할 계획이고 대표이사로서는 특정한 일을 한다기보다 상담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울 생각입니다. 그리고 계획이라기보다 욕심이 있다면 상담소의 좁은 공간을 넓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은 상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비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좁거든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잡힌 것은 아니지만 후원회를 결성해서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덧붙이자면 상담소의 기능이 좀 더 확장되어 우리 나라의 올바른 성문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올바른 성문화란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서로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겠지요. 저도 그렇고 그밖의 많은 여성들이 경험하듯이 사회의 남성들은 아직까지도 여성을 성적인 존재 이상으로는 보지 않으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성교육과 성 역할적인 사회구조의 모순을 지적할 수 있는 인식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먼저 올바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겠지요. 일회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학년에 맞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맞물려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물론 남성들의 의식 전환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여성의 의식전환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사회구조의 모순을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은 우선은 여성일테니까요.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이런 것을 더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아직 까지도 뚜렷한 직업관이나 책임감을 가진 여성이 드물거든요. 물론 이러한 것들이 여성만의 잘못은 아니지요.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여성의 의식 전환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상담소에 대하여 바라는 것은 상담소가 성폭력의 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상담소에 대한 열의와 정성들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게 웃으시며 말씀을 마치셨다. 인터뷰를 마치고 땀을 나서는 기자의 어깨너머로 상큼한 새봄의 기운이 잔잔하게 흘렀다. **유**

신 정이 · 이 진상 기자

### 〈약력〉

- 1977. 2.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1982. 2. 세브란스 산부인과 전공의 수료 및 전문의 취득
- 1982. 3. 연세의대 산부인과 연구강사
- 1983. 8. 아세아 대양주 산부인과 학술대회 임원
- 1984. 8. 의학박사 취득
- 1989. 현 가족 계획협회 (성교육) 자원봉사자 교육위원
- 1990. 3. 현 연세의대 산부인과 동문회지 발행인 및 기획이사
- 1992. 3. 현 연세의대 영등포지부 동창회 총무
- 1993. 현 연세의대 산부인과 외래교수
- 1993. 12. 현 연세의대 서울시지부 간행이사
- 1994. 현 박금자산부인과 원장
- 1994. 현 영등포구 의사회 공보이사
- 1994. 현 정책자문 치안행정분과 위원 (내무부)
- 1995. 현 한국성폭력상담소 대표이사

# 내담자 지원체계의 활성화, 성폭력 예방과 올바른 성문화 정착

본 상담소는 「내담자 지원체계의 활성화」와 「성폭력 예방과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95년 주력사업으로 삼아 활동할 계획이다.

**상담부**에서는 주력 사업에 부응하여 「위기센터와 열림터 정착 및 활성화», 「상담원 재교육」을 기본 방향으로 잡고 있다.

일반상담은 상담활동에 내실을 기하고자 상담원 월례모임을 주관하여 상담사례연구나 특강으로 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성폭력 후유증 극복 사례집」이 8월에 발간될 예정이며 「상담자지원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변호사 12인이 매 주 토요일에 법적지원 사례를 검토하고 내담자 면담을 하는 「토요법률상담」을 3월부터 실시한다.

위기센터는 1년 5개월간의 위기상담을 분석한 자료집이 4월 본 상담소 개소 4주년 기념행사 때 발간된다. 위기상담의 재상담 일지 관리 및 분석을 철저히 하고 위촉의(委囑醫) 정기모임을 통하여 증거채취물의 보관 요령 및 폐기일자 확정, 진단서 발급문제 등을 논의한다. 위기상담이 오면 상담원, 병원, 경찰에 연결하는 활동과 보조상담을 하는 지킴이는 3월에 공개모집 하여 5월에 교육이 끝나면 활동하게 된다.

열림터는 국내 최초의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피난처 겸 인식처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피해 후유증 상담훈련과 집단상담프로그램으로 WORKSHOP을 2회 개최한다. 근친 성폭력 자료연구를 위한 모임이 8월에 있다. 그리고 한해를 총결산하는 연말평가 자료집을 12월에 발간한다.

**교육부**에서는 5월 11일부터 6주간 제7기 상담원 교육을 실시한다. 상담원 교육 이수자 중 성폭력 특별법이 규정한 자격에 해당하

는 자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올 하반기에는 국민학교 양호교사와 상업고등학교 상담교사를 위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전문가 집단의 인식전환과 참여를 위한 WORKSHOP을 개최한다.

**홍보출판부**는 상담소와 성폭력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 홍보출판자문위원의 모임을 활성화 한다. 나눔터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나눔터 기자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한다. 또한 올 상담소 주력사업인 성폭력예방과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 발맞추어 주 대상독자층을 청소년과 직장인으로 정하여 체계적으로 홍보한다.

**재정부**에서는 재정자문위원과의 연계를 활성화 하여 후원회 결성이나 후원재단 섭의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재정사업 계획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재정관리를 체계화시키고 직장내 성폭력 예방 비디오 제작을 통해 운영기금을 모은다. 「자녀들의 성교육」에 관한 연속강의를 이벤트로 한 백화점 바자회를 준비한다.

**대외협력위원회**에서는 성폭력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사건을 통해 타단체와 연결해 성폭력의 실상을 알린다. 특히 성희롱을 사회 문제로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의 올바른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 위 활동을 한다.

「음란 및 폭력성 조장 매체 공동위원회」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여 신문이나 광고 등 대중매체가 왜곡하고 있는 성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활동을 한다.

국제적인 성폭력 문제인 일본의 정신대 범죄 해결을 촉구하는 「정신대 수요 시위」를 주관한다. ☪

## 월 별 계 획

1월	신년자문위원모임	6월	숙박교육
2월	정기총회	7월	국교양호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
3월	9기 나눔이교육 성문화 진단을 위한 좌담회 개최	8월	상업고교 상담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 직장내 성폭력 예방비디오 제작
4월	4기 지킴이교육 개소 4주년 기념행사	9월	북경 세계여성대회 참가 전문가집단 인식전환과 참여를 워크샵
5월	7기 상담원교육 운영위원회	10월	운영위원회
		11월	세계 성폭력추방주간 기념행사



## 세계 성폭력 추방주간 기념 심포지엄

제4회 세계 성폭력 추방주간 기념행사로 본 상담소가 주최한 심포지엄 「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진단과 전망」이 지난해 11월 22일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렸다. 이 심포지엄은 -성폭력 상담기관의 역할과 성폭력에 대한 인식변화-라는 주제 아래 진행되었다. 주제발표는 최영애(본 상담소 소장), 심영희(한양대 사회학 교수), 문경란(중앙일보 기자), 이종걸(변호사), 이봉화(정무제2장관실 사무관)가 참여했다.



## 성폭력 위기센터 제3기 지킴이 탄생

지난해 11월 25일 제3기 지킴이 수료식이 있었다. 11월 11일부터 7회에 걸쳐 서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3기 지킴이 교육이 진행되었고 역할극을 끝으로 수료식을 가진 후 12명의 남자 지킴이를 포함한 53명의 제3기 지킴이들은 1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이로써 현재 지킴이들은 모두 116명(1기 19명, 2기 44명 포함)이 활동하고 있다.

## 제 6기 상담원 교육 수료식

지난해 9월 27일 시작한 제6기 상담원 교육은 여성학과 상담원 교육과정 등 12회에 걸쳐 이뤄졌다. 12명의 6기 상담원들은 4주의 상담실습 교육을 받고 12월 10일 수료식을 마친 후 전문 상담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인정 성폭력 전문상담원 위탁교육기관 지정

지난해 12월 22일 보건복지부(전 보건사회부)로부터 본 상담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해 성폭력 전문상담원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자격증은 의학, 간호학, 법학, 여성학, 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이와 유사한 학문을 전공한 자,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녀복지 상담원 또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 지도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에게 주어진다.

##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 항소심 5차공판에서 본 상담소 최영애 소장 증언

1월 10일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5차공판에 본 상담소 최영애 소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영애 소장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직장내 성폭력 실태와 피해자들의 후유증의 심각성을 알렸다. 본 상담소에 접수된 직장내 성폭력 상담은 전체 상담 중 18%를 차지하고 있다.

## 신년 자문위원 모임

1월 24일에는 서울클럽 「한라산」에서 새해를 맞이하여 자문위원들의 모임이 있었다. 이 모임에는 특별히 성폭력 근절 및 피해자 지원 활동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서상목 보건복지부장관, 김장순 정무제2장관을 초청인사로 모시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본 상담소 자문위원은 모두 103명으로 이중 16명은 이번 모임을 계기로 새로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 95년 정기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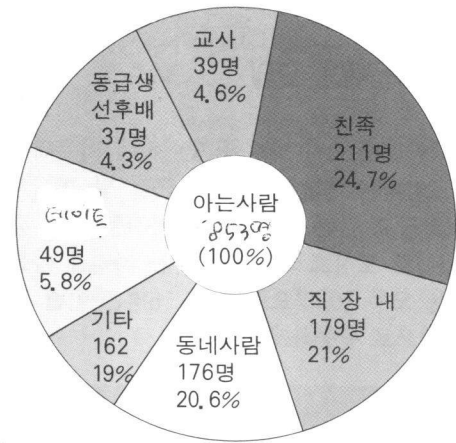
95년 정기총회가 지난 2월 11일 상담소에서 있었다. 이사, 상근자, 상담원들이 함께 한 이번 총회는 94년 활동보고, 결산보고를 비롯하여 95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승인, 임원 선출, 직원 취임 승인과 신입 순서로 진행되었다. 박금자(박금자 산부인과 원장)이사가 새 대표 이사로 선출되었고, 최영애 소장은 재임되었다.

일반상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동안 본 상담소는 2553회에 걸쳐 1723건의 상담을 받았으며 그 중 성폭력에 대한 상담은 1356건으로 전체의 78.7%를 차지하였다.

피해자의 연령을 보면 20세 이상의 성인이 51.2%, 14-9세의 청소년이 17.6%, 13세이하의 어린이가 28.7%를 차지하여 어린이 성폭행 피해자가 여전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일반 강간과 성추행 사례(1356건)를 살펴보면,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62.9%이며 <그림1>에서 보듯이 아는 사람 중에는 친족과 직장동료, 상사, 동네사람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피해후 신고나 고소를 한사례는 전체의 22.1%로 나타났다. 이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모르는 사이인 경우는 신고 및 고소율이 32.2%인데 비해 아는 사이는 14.6%로 훨씬 그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림1 아는사람>

<표1> 상담현황

1994년 1월 - 12월

유형	가해자				피해자					소계	고소
	성인(20~)	청소년(14~19)	어린이(8~13)	유아(0~7)	미상						
성폭행 770 (56.8%)	일반강간 728 (53.7%)	아는사람 543 (40%)	친족	아버지, 오빠(6%)	2	34	44	7	2	89	11
			친인척(4%)	21	7	21	4	53	2		
			동네사람(6%)	32	16	20	11	2	81	24	
			데이트상대(3%)	39	6				45	6	
			직장상사·동료(8%)	99	12			2	113	24	
			교사·강사(1%)	3	9	6			18	1	
			동급생·선배(2%)	13	10	2			25		
			기타(8.8)	88	22	8		1	119	26	
			모르는 사람 149 (10.9%)	72	38	33	3	3	149	52	
			미상 36 (2.6%)	19	4	6	1	6	35	9	
윤간 42 (3.1%)	18	18	1	1	4	42	12				
성추행 490 (36.1%)	일반성추행 407 (30.0%)	아는사람 310 (22.9%)	친족 69 (5.1%)	아버지, 오빠(2%)		14	10	4	1	29	1
			친인척(3%)	5	4	17	14	40	2		
			동네사람(7%)	8	2	29	56	95	14		
			데이트상대(0.3%)	4				4	2		
			직장상사·동료(4.9%)	62	3			1	66	9	
			교사·강사(0.9%)	6	4	11			21		
			동급생·선배(1.5%)	3	1	2	6		12		
			기타(3.2%)	26	2	5	9	1	43	3	
			모르는 사람(6.4%)	42	9	19	15	2	87	24	
			미상(0.7%)	4	3		3		10	2	
강간미수(6.1%)	72	2	6	2	1	83	36				
언어추행(4.2%)	47	1	1		8	57	1				
남성피해(2.9%)	9	17	7	5	1	39					
계	694	238	248	141	35	1,356	261				
기타	성문폐, 순결	65	22	6	4	2	99				
	인신매매	1					1				
	아내구타	13					13				
	혼인빙자	19	1				20	2			
	장난전화	9	3	1			13				
	기타	189	22	3	4	6	221	8			
	계	293	48	10	8	8	367	10			
계	987	286	258	149	43	1,723	271				
재상담	강간	277	127	128	43		575	27			
	성추행	103	16	50	27		196	12			
	남성피해	14		6			20				
	기타	32	4	3			39	1			
계	426	147	187	70		830	40				
총계	1,413	433	445	219	43	2,553	311				

『토요일법률상담』 개설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의료적·법적·심리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본 상담소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94년 3월에 결성된 「상담지원위원회」는 고소나 상소 여부의 결정, 법적지원의 내용(진정서 쓰기, 법정 동행, 검사면담 등) 결정, 지원 종결 시기 결정 등 전문가적 자문을 주로 해 왔다. 이러한 상담지원위원회의 활동으로 본 상

담소에서 내담자에게 할 수 있는 법적지원의 내용과 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었고 효율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게 되었다. 95년부터는 보다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위해 상담지원위원회 소속 변호사가 법적지원사례에 대해 매주 토요일 상담소에 내담자를 직접 상담하는 『토요일법률상담』(위원장:조영환 변호사)을 개설하였다.

이 토요일법률상담에서는 법적지원을 바라

는 내담자를 직접 변호사가 상담하여 고소 여부와 소송지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조언을 해 준다. 또한 법적지원 사례를 검토 자문하여 상담소의 지원방법과 한계를 협의하게 된다.

토요일법률상담의 '일정과 지원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일정

날짜	변호사
95년 3월 4일	강기원 장철우
3월 11일	이명숙 박찬운
18일	이종길
25일	이항아 조영환
4월 1일	정갑생 이상경
8일	김삼화 장재호
15일	강기원 장철우

2. 지원 방법

- ①법적지원을 요청하는 사례를 상담부에서 취합하여 상담지원위원회의 「토요법률상담」에 의뢰한다.
- ②직접 변호사 면담을 요청하는 내담자는 일차 면접을 거친 후 면담일정을 배정 받아 직접 면담한다.
- ③변호사 면담은 무료, 사건을 위임할 때는 최소한의 기준 수임료를 책정한다.

위기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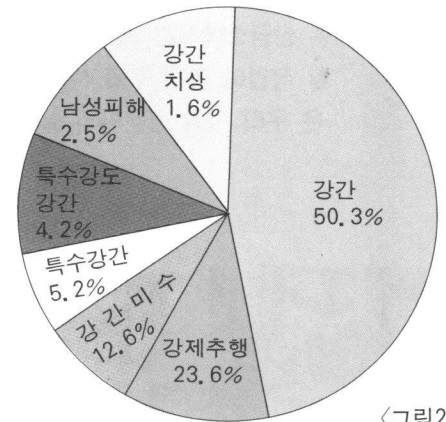
위기센터를 개설한 93년 12월에 10건의 상담을 받은 이후 94년 1년간을 결산해 본 결과 총 상담건수는 191건으로 피해 유형별 분포는<표2>과 같다.  
후속처리로서는 산부인과 연계가 47건으

로 가장 높았고, 정신과 연계 2건, 외과연계 2건, 본 위기센터 증거 채취실 이용 3건, 경찰 연계 29건, 열림터 연계 1건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 연계가 가장 높은 이유는 상담시에 증거채취의 중

요성을 상담원이 적극적으로 설명할 뿐만 아니라 피해 직후 상담을 청해 오는 사람의 경우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2>

연령	피해유형	강간	강제추행	특수강도 강간	특수강간	강간미수	남성	강간치사
0 ~ 7		4	20			1	1	
8 ~ 13		17	14	1	1	1	1	2
14 ~ 19		28	3	2	4	1	3	
20 이상		47	8	5	5	21		1



<그림2>

열림터

94년 9월 14일 열림터를 개설한 이래 열림터를 이용한 내담자들은 모두 지속적인 피해 상황에 놓여 있는 근친 성폭력 피해자들이었다. 특히 이들의 공통적 특징으로는 어머니는 물론 친인척 어느 누구에게도 보호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사회적으로 무력한 상황의 어린 학생들이었다.

열림터 상담은 운영위원들의 적극적 지원과 참여로 내담자들에게 1주 2회 정도 약50회의 개별상담 야외운동, 비디오 관람, 독서, 시장보기, 꽃시장 견학 등의 프로그램

을 제공하여 내담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인식과 가해자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정리하게 하여 앞으로의 현실적 삶에 대처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직접적인 내담자 지원으로는 변호사 면담, 경찰·검찰 방문 및 연계 활동, 내담자 친지·담임교사 면접, 산부인과 진찰 및 치료, 정신과 전문의 상담, 임상테스트 등 다수에 이른다. 특히 경찰·검찰과의 연계활동에서는 내담자보호에 역점을 두어 진행되

며 내담자로 하여금 심리적 안정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가해자를 만나는 것은 특기할만한 상황으로 앞으로의 가해자 연구에 보탬이 되리라 본다.

또한 내담자에게 질 좋은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위원과 부원들간의 재교육과정으로 월 1회의 사례발표 모임과 운영위원회가 실시되고 있다. 근친 성폭력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갖기 위해 『Father daughter incest』를 연구하는 모임이 이뤄지고 있다.



# 우리 사회 성문화 어디까지 왔나?



◆참석자(가나다순)

김병후(정신과 전문의)

오숙희(여성학자, 방송인)

이명화(YMCA 청소년 성상담실 실장)

이용교(한국청소년개발원 선인연구원)

최영애(본 상담소 소장): 사회

◆일시: 1995년 3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12시 30분

◆장소: 본 상담소 강의실

본 상담소에서는 95년 주력 사업 중의 하나인「성폭력 예방과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작업이 현재 우리 사회 성문화의 수준을 진단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어 좌담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이날은 우리 사회 성문화의 실태를 진단하고 앞으로 성폭력 예방과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해 상담소가 해야 할 일들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병후:정신과 전문의

하여 어떤 문제가 많습니까?

사회 : 먼길에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저희 상담소 주력사업이 「성폭력 예방과 올바른 성문화 정착」인 만큼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 사회의 성문화를 진단하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우리 사회의 성문화 실태를 성인과 청소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 다음에 종합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먼저 김병후선생님, 임상에서 상담한 사람들은 성과 관련

관점에서 성이란 넓은 의미로 인간에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성을 남녀간의 성행위로만 생각하여 인간생활에 도움을 주는 성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회 : 남성과 여성이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김병후 : 여성은 성의 즐거움을 잘 모르는데도 남성의 일방적인 요구에 응해야 하기 때문에 성을 제대로 즐기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시당하는 느낌, 기체가 된 느낌, 육체가 이용당하는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남성은 성에 대해 잘 얘기하지 않는 편이고 성에 대한 열등감이 여성보다 심합니다. 성적인 능력을 자신의 인격으로까지 확대시켜 만족하지 못할 경우 상대 여성의 비난이 큰 상처가 되어 성불능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성이 힘이 세서 여성이 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심리적으로는 남성이 더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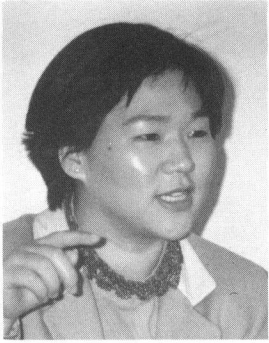
**“성을 남녀간의 성행위로만 생각하여  
인간 생활에 도움을 주는 성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 문제”**

김병후 : 본인은 성문제인지 모르지만 깊이 들어가다 보면 꼭 성문제와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중년부인은 성관계를 할때면 늘 짜증스럽고 남편에게 당하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고 합니다. 「상대가 있는 성」이어야 하는데 일방적인 성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성에 있어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차단되어 있는 것이죠. 의사가 보는

사회 : 남녀 모두 내용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성에 억압받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면 남녀의 성인식과 형태가 어떻게 다른지 요즘 「남자를 위하여」란 프로에서 남성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오숙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숙희 : 언젠가 「40대 남성들의 건강, 무너지고 있다」라는 주제로 건강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정력 이야기」로 흘러간 적이 있습니다. (웃음) 남성들은 건강을 말하면 왜 항상 정력을 생





이명화: YMCA 청소년성 상담실 실장

각하냐고 어떤 회사원에게 질문 하니깐 그것은 당연하다고 말하면서 성적인 능력 자체가 육체적 검증이라고 말합니다. 남성들에게 있어 정력은 인생에 있어서 자신감이기 때문에 육체적 검증과 심리적 요인이 매우 강하게 유착되어 있습니다. 여성들도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긴 하지만 남성들은 이것을 성과 연결시키기 때문에 부담이 하나 더 느는 것이죠. 성적인 면에서 남성들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남녀의 성이 어떻게 달라져 왔던가, 얼마나 서로를 모르고 다른 가치관을 쫓아왔던가를 진단해 보고 싶습니다. 성문화에 있어서 남녀가 너무 다르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간격을 줄일 것인가? 남녀 모두에게 보편화 될 수 있는 성을 생각하는 것이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남자들에겐 성이 능력과 동일시되면서 억압받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남녀의 다른 성적인 억압의 형태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 잠시 후에 논의 하기로 하고 이제는 이명화선생님께서 청소년들의 실제적인 성의 형태와 특성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명화: 청소년들의 전화를 받으면서 그들도 성인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느낍니다. 남자아이들은 성을 능력의 척도로 생각하고 있고 성개방 풍조가 만연하면서 여자아이들도 성에 대해 자유로울 것으로 생각 되지만 실제로 가부장적이고 순결주의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민을 들어보면 10년 전쯤에는 구체적인 신체상의 문제, 성의 변화 등 객관적인 지식에 관한 문의를 많이 해왔는데 최근에는 기본적인 객관적인 지식보다 실제적으로 자기가 문제를 안고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들은 구체적으로 성기의 크기나 성의 기술을 친구와 비교해서 전화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청소년 문제가 어떻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화되고 노골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성만이 피해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이 피해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학생의 경우 지나가는 여학생을 보면 뒤에 가서 만지고 싶다는 욕구 때문에 공부가 되지 않고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성폭력 가해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이 더 많이 전화하고 있는데 어찌보면 남학생이 더 피해자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남학생들은 텔레비전이나 광고에서 자극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것을 표출할 수 있는 정상적인 통로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성과 직접 관계하는 것만이 정상적인 통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도 심리적인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성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는 청소년도 억압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지금 청소년들은 생리구조적인 측면에서 올바른 정보를 갖고 있습니까? 저희 상담소에는 가끔 '생리 중에 당했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여학생도 있는데 학교에서 보건학적인 면에서의 성지식을 정확히 전달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명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터무니없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자위행위를 했는데 에이즈에 걸리는 것은 아닐까요?' 라는 질문같은 것이죠. 옛날보다는 공개적인 지식이 많이 늘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회: 이용교선생님께서서는 그동안 연구하신 점에 비추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성문화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용교: 애정없이도 성관계를 할 수 있고, 성·사랑·결혼은 별개 문제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성은 남성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고 에너지의 지표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청소년들에게는 과도하게 나타납니다. 성이란 전에는 두사람만의 은밀한 관계였지만 최근에는 집단적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문화로까지 생각하고 있고 '해보니까 별것 아니다,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일부 청소년들 중에는 씨클의 입단식으로 친구 생일을 빙자해 아파트에서 집단적으로 성관계를 갖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몰래 보는 비디오에는 단계가 있는 애정표현이 아니라 '지금 당장 아무하고나' 성관계를 갖는 장면이 많은데 청소년들이 그런 비디오의 일차적 수혜자(소비자)라고 생각한다면 문제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들입니다.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여학생들에게 '모든 남자는 늑대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성에 대해 질문하면 '결혼해서 살게 되면 다 저절로 알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에 대해서 알고, 즐기는 것이 중요한데도 성에 대해서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성을 민주적으로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에 대해서 잘 알아야 성생활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데도 말입니다.

### “성에 대한 정보는 홍수같이 넘쳐는데 제대로 된 정보는 없어”

사회: 지금까지 네분 선생님이 성인 그리고 청소년에 있어 남녀의 성인식의 차이와 특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공통적으로 종합하여 얘기하면 성교육의 부재, 구체적 성지식에 대한 정보의 부족, 민주적인 성을 양쪽이 배우지 못한 것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숙희: 한 가지 부연하면 남녀 모두 성적 스트레스를 받지만 남녀간에 그 형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서로 다른 룰(rule)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첫째는 가부장적 유교문화가 잔재해 있고 둘째는 자본주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성의 상품화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욕구를 느끼는 즉시 충족 시킬 수 있는 자본주의 특성 때문에 패스트 푸드나 인스턴트 식품 등이 발달하고 성도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양극의 입장은 개인



오숙희: 여성학자, 방송인



이용교: 한국청소년개발원 선임연구원

의 입장에서 보면 가치관에 혼란이 옵니다. 성에 대한 정보는 홍수같이 넘쳐나는데 제대로 된 정보는 없고 개인의 자유에 맡긴다는 미명 아래 주체가 소외되어 있는 것이죠.

김병후 : 제가 보기엔 성이 힘의 과시라기 보다는 책임감, 의무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0대 이후에는 「의무방어」란 말도 있을 정도죠. (웃음) 또한 여성들의 신체에 대해, 특히 성감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 잘 모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의사소통의 결여를 의미합니다. 서로간의 성관계가 영화의 장면처럼 되어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남자들이 영화에서처럼 여성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니까 늘 위축당하는 기분을 느껴 자신이 대접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 결국 '외도'인 셈입니다. 또한 노력하는데도 늘 열등의식만 주는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게도 되는 것이죠.

사회 : 저희 상담소의 사례를 보면 어린이 성폭력의 가해자 중에는 노인이 많습습니다. 외국의 이론에 의하면 이들은 자신의 성적 능력에 대한 불안감을 전혀 알아 챌 수 없는 어린이를 성폭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성이 남성의 능력과 동일시되는 연속선상에서 성의 억압으로 외도가 생기고 폭력으로 발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문제를 어디서 풀 것인가? 이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군요. 앞으로 성문화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상담소의 과제와 연결시켜서 자유롭게 토론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곡된 성문제를 해결하려면 양성평등을 이루어야”**

오숙희 : 「여자들의 이야기」는 체계화되어 있는 반면 「남자들의 이야기」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담소가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홍보지인 『나눔터』에 잘못되어 있는 상식을 타파하고 성의 과학화를 이뤄내는 내용의 글을 연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남자들도 터놓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용교 : 제가 보기에 성문제를 푸는 가장 큰 틀 중의 하나는 양성평등을 이루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시킬 때와 같이 모든 생활속에서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부부 자신이 성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자녀들 성교육을 시킬 수 있듯이 민주적인 성생활이 다른 일상생활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정확한 성지식이 반드시 청소년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kin제이성보고서」와 같은 책을 낼 수 있는 연구기관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객관적인 성지식은 얼마든지 있는데 실제 청소년들에게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막혀있어”**

이명화 : 저는 성과 관련된 객관적인 지식들은 얼마든지 있지만 통

로들이 막혀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음성정보함에 성교육프로그램을 짜서 내보냈는데 절반 이상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노골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해요. 이미 객관적인 성지식은 얼마든지 있는데 실제 청소년들에게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막혀있어요. 사실 학교현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정확한 지식을 가르치고 있지 못합니다. 아이들에게 가정의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를 없애야하고 성에 있어 억압적이기 보다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대중들과 함께, 미혼 남성, 미혼여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최영애: 본 상담소 소장

김병후 : 성개방이야기를 하셨는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성에 노출되는 시기가 나이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포르노비디오를 본다 하더라도 유치원 아이나 국민학교, 중학생 모두에게 받아들여지는 수준이 다릅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하지 그렇지 않을때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성문제는 남자 여자가 살아가는 문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성으로만 풀려고 하지 말고 광범위한 성을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지식 자체를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죠.

이용교 : 성폭력상담소만의 고유한 분야를 만들어서 여론을 환기시키고 제도화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어린이 성폭행 예방을 위한 비디오도 만든 걸로 아는데 청소년과 30,40대를 위한 자료개발이 필요합니다. 성생활에 대한 다양한 양태와 사례를 채집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 등이죠. 최근의 예를 들면 여성민우회에서 「여보, 우리 이렇게 해요」라는 책을 냈는데 이는 부부관계를 양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비디오나 CD같은 구체적인 자료로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성폭력 상담소는 서울을 중심으로 각 지방에 지원을 두고 네트 워크로 연결하여 활동하고 국제기구에서는 기능을 강화하여 성문제의 세계화를 이룩했으면 합니다.

**“장기적으로 성에 관한 상담소, 연구소, 출판사 등 종합 센터를 만들 계획”**

사회 : 올 상반기에 직장내 성폭행 예방 비디오를 만들 예정이고 내년엔 청소년에 관한 비디오를 만들 계획이어서 올 하반기에 그에 대한 연구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우리 상담소가 직장인과 어린이들에 대한 사례는 많이 있지만, 상담시간이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여서인지 청소년들이 전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문에 청소년들에 관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인데 이제는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양태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성에 관한 상담소, 연구소, 출판사 등 종합 센터를 만들어 우리나라에서 성에 관한 한 이 사회를 주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

## 94년 여성계의 결산

94년은 UN이 선포한 「세계가정의 해」임과 동시에, 95년에 치뤄질 지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여성 정치 참여 확대에 주력한 해다. 따라서 각 여성단체들은 부부관계, 청소년 문제 등 현대 가족이 안고 있는 난제를 풀기 위한 논의에 집중했으며, 또 한편으로는 여성정치참여의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부산했다.

### 가족유대의 강조와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집중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협)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남성의 가정생활 참여확대를 통한 「평등한 부부관계 정립」과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위치 재정립, 가정에서의 남녀평등교육에 대한 정책을 제시했다. 한국부인회는 한국가족학회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해 이혼, 타아 등 현대 가족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한편, 맞벌이 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탁아사업을 확대 실시했다.

대부분의 여성단체들은 가족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되어 왔던 사람 돌보기 등에 관심을 기울였다. 서울 YWCA는 「밝은 가정 바른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구성해 방 송, 통신, 인쇄매체의 만화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 활동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부부역할훈련과 「활기찬 노후생활 준비모임」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전국 주부교실 중앙회는 소년 소녀가장과 자매결연을 하는 「한 가정꾸미기 운동」을 펼쳤다. 한국여자의사회는 「여성건강과 사회건강」을 주제로 대강연회를 가졌다.

### 가정내 폭력추방운동 전개

한국여성의전화를 주축으로 한 8개 여성단체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폭력추방주간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가정내 폭력 추방캠페인에 나섰다. 「아내구타, 아동학대, 깨어진 가족공동체」를 주제로 가정폭력 추방주간 선포식, 가정폭력 사진전, 가정폭력 관련 영화 상영, 가정폭력 방지 추진을 위한 공개토론회 등의 가정폭력 주간행사를 전국적으로 펼쳤다. 여성과 어린이 등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미미한 폭력일지라도 인간성의 파괴와 같은 악영향을 야기시킨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출판물 등을 통한 홍보가 행해졌다.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20% 할당제의 도입추구

여협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은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단체연대」를 구성해 공동대표를 선출하고 95년에 있을 지방자치제선거에서 각 당별,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에 의무적으로 여성을 우선 공천하도록 하는 「20% 여성공천보장 할당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힘을 모았다. 여연은 특별히 「20% 지방의회 여성참여 위원회」를 발족해 지방의회 여성의석 20% 확보를 위해 전략을 짜는 한편, 여성정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유권자 대상 교육홍보활동을 펼쳤으며, 적극적인 홍보의 일환으로 남성의 후원을 얻기 위한 행사도 개최했다.

### 여성 취업 활성화 제안: 남녀 고용평등화의 길

여협은 남녀고용평등화를 이루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서 여대생 취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심포지엄을 가지고 여성채용 쿼터제 도입, 대통령직속 평등기구와 고용차별실태 모니터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으며, 여연은 여성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모성 보호비용의 사회화방안 연구를 위해 영유아 보육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또 한국민우회는 시간제 근로등 비정규적인 변형된 근로형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직장내 임시직제, 부당해고 등과 관련해 은행, 병원,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연대활동을 펼쳤으며, 육아휴직과 직장탁아 수요 충족 방안 심포지엄을 열어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국가의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또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과 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은 고졸여사원 채용과정에서 키, 몸무게, 용모 등 신체조건을 제한한 44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성차별을 이유로 서울지검에 처음으로 고발했다.

### 국제적인 차원으로 확산되는 한국의 여성문제, 정신대 대책마련

56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NGO 한국위원회는 「제4차 유엔세계여성대회와 한국여성발전전략세미나」를 가지고 북경여성회의에서 채택될 여성행동강령에 한국의 여성문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는 중국에 생존해 있는 일본군대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이고, 일본군대위안부의 진상 규명과 배상요구와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자 처벌 요구를 내용으로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준비를 하는 한편 동아시아 여성포럼에서 대만, 북한, 중국, 일본 등 8개국 참가자들이 일본의 유엔 안보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는 국제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함에 따라 정대협이 주축이 되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환경운동의 다각화

각 여성단체들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거나 음식물 쓰레기의 기계식 처리방법 확산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쳤으며, 자원재활용품 전시회, 덜 쓰기, 물러쓰기 운동을 펼쳤다.

오염된 환경을 되살리기 위해 지방마다 환경 감시단을 발족, 셋강살리기 운동을 펴기도 했다. 수입개방에 대처해 소비자 교육을 실시했으며, 수입상품 검사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농산물에 대한 소비를 늘리기 위해 우리 농산물 먹기와 농작물의 품종개량 및 유기농법으로의 전환, 유기농산물직거래장 운영 등의 사업을 폈다.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깨끗한 주위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여성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더욱 필요하다.



# 넓은 술도 새 부대에...

「직장내 성폭력」의 문제는 결코 새로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특정한 시대의 문제도, 특정한 직업에 관한 문제도 아니며, 특정 이익집단의 문제라고는 더군다나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여성이 노동에 참여하고서부터, 보다 정확하게는 여성이 노동에 참여하는 방식이 남성 중심의 그것으로 특징지어질 때부터 생겨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에게 직장내 성폭력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그 어느 때보다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적절한 대처,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사회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에서는 4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직장내 성폭력의 문제를 다루어 이에 발맞추고자 합니다.

**말** 할 것도 없이 묵은 술은 묵은 부대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러나 묵은 술이 담긴 부대가 터지게 되었을 때, 포도주 주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전환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와 같은 아이러니에 놓이는 포도주 주인이 되기 쉽다. 비록 통계에 잡히지 않을망정 인간 노동의 역사 만큼이나 긴 연원을 지니고 있으면서, 새롭게 인식되어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직장내 성폭력의 문제 역시 그와 같은 문제의 하나일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아이러니에 대하여, 직장내 성폭력의 개념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직장내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는 그것을 직장여성만의 특정한 문제가 아닌 여성에 대한 노동권 침해, 나아가 인권 침해의 한 측면으로 여겨 올바르게 대응하도록 도와줄 기초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 “직장내 성폭력은 사회 전반에 팽배한 왜곡된 성문화가 그 배경”

### 1. 부대가 넓은 것을 깨달으려면...

포도주는 마시게 되면 취하고 만다. 성과 관련된 문제도 이와 같아서 많은 왜곡된 모습들과 환상, 금기가 존재하고 이를 온전히 바라보는 일 자체가 어려운 일이 되고 만다. 직장내 성폭력의 문제가 일반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주요한 계기는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을 통해서였으며, 이를 통해 「성희롱」이라는 단어는 쉽게 대중의 화제에 오르내리는 말이 되었다. 그러나 일반인의 관심은 「그러한 일에 3000만원이나 받을 수 있다」는 흥미 이상의 수준을

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의 태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주로 선정적인 기사를 통하여 흥미위주의 시각을 보이거나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시각을 대변하여 수구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결코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때로 직장내 성폭력의 문제를 특정 개인의 문제로 희화시켜 그 의미를 축소하거나 혹은 이러한 문제가 특정한 이익집단의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발생한 것처럼 오도하였다. 이러한 태도의 이면에는 우리 나라가 안고 있는 「왜곡된 성」에 대한 문화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여성의 노동에 대한 경제학적인 요

인과 이와 관련된 견제가 작용하고 있음을 보아야 한다.

직장내 성폭력이 직장내에서 이루어 지는 폭력의 일종임에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데에는 사회전반에 팽배한 왜곡된 성문화가 그 배경이 된다. 그와 같은 성문화는 「성에 대한 이중체제와 성의 상품화」로 집약될 수 있다.

우리의 성문화는 성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금기로 여겨 감출 것을,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부풀리고 과장할 것을 요구하는 이중적인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남성에게 있어 성과 관련된 두 가지 체계는 어느 것에 따르더라도 용인된다. 그러나 여성에게는 수절하는 열녀의 모습을, 또 한편으로는 남자를 만족시켜야 하는 요부의 모습을 보일 것을 강요하는 성에 대한 통제의 모습을 띤다. 이러한 이중적인 규범은 성에 관해 올바른 인식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여성의 직장생활에 적용될 때는 직장에 대한 적응을 어렵게 하는 견제도구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의 성문화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성의 상품화와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이다. 향락산업의 번창과 함께 성의 상품화는 직장내의 술자리 문화와 연관되어

- ① 직장내 성폭력의 개념과 의미  
- 「넓은 술도 새 부대에」
  - ② 직장내 성폭력의 유형, 피해자가 겪는 문제들, 예방 및 대처요령
  - ③ 직장내 성폭력 - 상담사례연구
  - ④ 직장내 성폭력에 대한 법적, 사회적 대응
- ★ 사례 :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직장내 성폭력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 직장문화 역시 왜곡된 성문화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여직원에게 성적인 서비스를 요구하고 성희롱을 일상적인 것으로 잘못 인식시키는 구조적 토양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왜곡은 어려서 성역할을 배워나가는 과정중에 이미 시작되며, 미래에 남성을 직장내 성폭력의 가해자로 여성을 피해자로 예비시키는 것이다.

한편 직장내 성폭력 문제는 문화적 왜곡이 노동자체의 성격과 생산양식에 관련되어 있다. 육체적 노동이 노동의 전형으로 자리잡은 속에서 여성의 노동은 올바르게 평가받지 못하고 남성의 보조자로, 성적 대상으로 취급받고,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상품」으로 광범위하게 소외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직장내 성폭력과 관련하여 그것을 몇몇 사람들만의 문제로 보거나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통념일 뿐이다. 직장내 성폭력의 문제는 몇몇 특정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통계적으로도 91년에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해서는 직장여성 중 15.4%가 성폭행을, 한국여성민우회의 93년 11월 사무, 전문, 판매, 서비스 직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장내성희롱에 관한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87%가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내 성폭력은 피해자의 피해가 두드러지는 심각한 문제이다. 성적인 농담이나 가벼운 접촉이 직장생활에 활력소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근거없는 억지 논리일 뿐이다.

직장내 성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영향을 받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를 받기도 한다. 직장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개인의 업무능력을 떨어뜨리고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며, 자진사퇴나 해고 등의 형태로 노동시장에서 여성을 배제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노동에 대한 여성 소외수단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다른 통념들은 다른 여러 성폭력과 관련된 통념들과 그 기원을 같이 한다. 경제적으로 생산현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과 여성 노동의 소외가 문화적인 모습으로, 왜곡된 성문화로 표현되어 통념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들은 생산양식의 변화에 따라 갈수록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권력이 전근대적 양식인 육체적 능력에서 여성이 유리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남성을 군림시키던 요인들이 이제는 「수퍼맨의 비애」를 몰고 오는 요인이 된다. 직장내 성폭력을 올바르게 인식함에 있어서 이러한 틀이 이미 낡은 것에 바탕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은 중요하다. 부대가 낡았고 지탱하던 실밥이 이미 뜯어지고 있음을 깨닫는 것은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 위한 밑거름이다.

## “직장내 성폭력은 성적행위 뿐만 아니라 성별에 기반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

### 2. 직장내 성폭력이란...

이제 본격적으로 직장내 성폭력의 개념을 정의해 보기로 한다. 우선 편의를 위하여 직장내 성폭력을 조작적으로 정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직장내 성폭력이란 직장이나 채용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종류의 불쾌한 성적인 언어나 행위로서, 여성에게 굴욕적인 감정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게 하고 불쾌한 생각을 갖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성적행위」란 시각적·언어적·육체적 행위로서 음란물의 전시나 낙서, 성적 봉사의 요구 등이 포함되는, 응시하는 행위에서 강간에 이르기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또한 직장내 성폭력의 배경이 되는 「직장」이라는 용어는 (작업장) Workspace로서의 공간적 의미뿐만 아니라 직장을 매개로한 인간관계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등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 된다.

직장내 성폭력의 개념은 피해자 중심의 개념이기도 하다. 이러한 직장내 성폭력과 직장내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상적인 행위들을 구별하는 기준은 성폭력이 진정한 개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행해지는 성적인 언어나 행위라는 점이다. 참고로 여기서의 「진정한 개인의 의사」란 위계적 권위에 의한 암시적인 강요나 주위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영향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충분한 시간적·정신적 여유를 갖고 판단한 결과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작적인 정의는 직장내 성폭력이 한편으로 채용과 해고, 승진과 강등, 보상과 징계에 대한 남성 권력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영어에서는 성폭력에 있어서 권력행사의 측면을 표현하고 있는 용어로 「Sexual Harassment」가 있다. Sexual Harassment란 원하지 않는 성적행위의 부과로서, 단순히 지나가는 말에서 부터 포옹이나 육체적 접촉, 강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원하지 않는 행위는 단순히 성적욕구에 기반한 행위가 아니라 성을 매개로 권력의 불평등과 관련된 행위임을 나타낸다. Sexual Harassment는 현대여성 운동의 과정에서 여성운동의 정치성을 담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만들어낸 조어로서 직장내 성폭력을 직장내에서의 성차별의 하나로 인식하게 하는 표현이다.

이와 관련하여 직장내 성폭력의 개념이 종래의 「성적행위」뿐만 아니라 「성별에 기반한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점차 확장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여기에서 「성별에 기반한 행위」라는 것은 직장내에서 성차별적 혹은 여성비하적인 언어를 구사하거나, 고정관념으로 성별에 따라 직무를 나누어 분업을 강요 하는 등, 성별로 그 사람의 평판을 떨어뜨리거나 비웃는 행위 혹은 위협적이거나 육체적으로 학대하는 행위 모두를 의미한다. 다른 예로 외모나 옷에 대한 평가는 직접적으로 성적행위에는 속하지

않으나 성별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여직원에게 불쾌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성폭력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확장된 직장내 성폭력의 개념이다. 유럽공동체 위원회에서 발간한 지침서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적용, Sexual Harassment를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 혹은 직장내 남녀의 존엄성에 영향을 미치는 성에 기반한 모든 행위로 규정짓고 이었다.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990:21)

### “직장내 성폭력은 직장에서의 권력행사와 관련된 구조적 폭력의 문제”

## 3. 넓은 부대를 고집하게 하는 것들

그렇다면 직장내 성폭력의 원인이 되고, 계속적으로 존속되도록 허용시키는 틀은 무엇인가. 이것과 관련하여 다시 확인하여야 할 점은 직장내 성폭력이 성적불평등이라는 권력의 문제를 반영한다는 점이다. 즉 그것은 단지 개인들간에 벌어지는 사소한 언행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나라의 남녀 불평등의 사회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성차별의 문제라는 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여기서 직장내 성폭력의 원인이 되는 「권력관계」란 직장내에서의 위치에 의한 권력과 사회적으로 남녀간에 존재하는 성별에 의한 권력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직장내 성폭력은 직장내에서 벌어지는 이와 같은 권력의 행사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직장내 성폭력의 발생 원인이 되고, 이를 유지시키는 직장내 권력구조의 틀을 크게 두가지로 살펴 보고자 한다.

우선 직장내 성폭력이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직장내에서의 뿌리깊은 성차별구조가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직장내 지위나 임금, 직무와 관련된 불평등구조는 이미 수없이 지적되어 왔다. 통계적으로도 1993년도의 전 직종에서 여성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54.6%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고위관리자의 경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임금, 지위상의 불평등한 관계는 모집, 채용 단계에서 부터 시작되어 채용 후 훈련, 승진 과정상에서의 성차별을 통해 유지된다. 이와 같은 구조안에서 대부분의 남성은 관리자의 위치에, 여성은 그 감독권 안에 있는 직원이라는 위치에 속하여 위계상의 불평등한 관계에 처하게 되는데, 이러한 위계상의 권력을 기초로 남자 상사는 업무에 대한 지시나 평가, 인사사고, 부서이동, 심지어는 해고 등을 빌미로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하거나 성적요구를 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불평등한 노동구조안에서 대부분의 남성은 여성보다 높은 지위에 있고, 이러한 권력관계는 남성과 여성을 성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로 구조적으로 위치지운다.

한편 노동시장과 관련하여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의 하나는 직무에 나타난 「성별에 의한 일의 분리」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성별분업구조에서 남성의 일은 여성의 일보다 높은 위계나 높은 임금을 특성으로 하고 있다. 많은 경우 여성의 업무를 남성을 보조하는 일로 규정하고 실제로 그러한 업무가 맡겨지는 상황은 성폭력의 발생과 밀접한 영향을 갖는다. 여성노동자에게 요구되는 조건이 능력이 아니라 외모 혹은 보조자로서의 역할인 직장구조에서, 여직원은 성적 대상이 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인식은 성폭력을 만연시키는 배경이 된다. 직장내에서의 성차별의 정도가 심할수록 여성은 노동자로서 보다 업무보조자로서 인식되며, 이러한 위치는 여성을 성폭력에 취약한 대상으로 만든다. 구조적으로 유지되는 이러한 불평등은 직장내 성폭력을 일으킬 권력을 제공하고, 앞서 언급한 왜곡된 성문화를 통하여 이를 정당화시켜 스스로를 유지하고 존속시키게 된다.

직장내 성폭력은 직장에서의 권력행사와 관련된 구조적 폭력의 문제이다. 이를 노동과 관련된 구조와 분리시켜 개인적이고 특수한 문제로, 혹은 우발적이고 사회적인 병리로 파악하는 것은 포도주를 담을 부대를 낡은 것으로 잘못 선택하는 것과 같다. 제대로 다루고 보존하려면 이제 새로운 부대를 찾아야 한다. 낡은 부대의 고집은 포도주의 손실만을 가져올 뿐이다.

이상으로 이번 호에서는 직장내 성폭력과 관련하여 그 개념과 발생 원인, 유지 구조 등을 살펴 보았다. 직장내 성폭력의 문제가 직장에서의 권력의 문제, 성적 차별의 문제, 노동에 있어서의 생산양식의 문제를 반영하고 있음은 「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썩이나 시사적이다. 이는 권력이동기에 직장내 성폭력을 문제 삼고, 이의 추방을 도모할 적절한 명분을 제공한다. 또한 합리성이 보다 중요시되는 풍토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왜곡된 권력행사를 제거하고 여성의 노동이 올바르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필요성을 제시한다. 직장내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지는 한, 이를 추방하고자 할 노력도 지속될 것이다. 역사는 아직 종언을 고하지 않았다. 불평등과 차별, 부당한 폭력이 존재하는 한, 이를 바로잡고자 할 노력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묵은 포도주는 자신의 부대가 터지기전 새로운 부대로 옮겨져야 한다. 직장내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노동권 침해의 문제로 새롭게 인식되어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어져야만 한다. 그렇다고 새 부대에 담겨진 묵은 술이 맛을 잃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옛 것보다 더 나은 부대를 기대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정도야 냉장고에서 육각수가 나오고, 비록 영화일망정 공룡들을 되살려내는 시대의 혜택이 아니겠는가. ♪

김병준 기자

“기사에 대해 공감하거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의 투고와 조언을 환영합니다. 나눔터는 연재기획을 통해 직장내 성폭력의 문제가 여성을 억압하는 또 하나의 구조적 폭력임을 인식하고, 이의 추방을 위해 함께 연대하는 장이 마련되지길 바랍니다.”

## 더 나은 성(sexuality)을 위하여

**인** 간과 성은 하나의 운명으로 묶여져 있다. 일반인에게 성의 범위를 관계의 측면이라는 좁은 범위로 한정시키면 구체적인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있다. 즉 좋은 성, 나쁜 성, 더 나은 성이라는 개념이 그것이다.

미국 철학자인 사라 러딕은 성의 도덕성을 이야기했다. 러딕에 의하면 일반인들이 떠들어왔던 「도덕성」은 주로 소유, 노동의 분배, 남성의 힘 등과 관계가 있는 것이었으며 성에 관해 도덕성을 운운하는 것은 보수적인 것으로 평가 받아 왔다. 일반인들의 관계에서 중시되는 믿음이나 도덕성의 문제들이 연인사이에서는 덜 지켜지는 수가 있다. 개개인이 생각하고 추구하고 있는 더 나은 성의 문제와 사회적인 의무, 도덕성 문제의 갈등속에 있는 일반인들을 위해 러딕은 더 나은 성을 판단하는 3가지의 기준을 설정했다. 즉, 더 큰 쾌감, 완전성, 자연스러움이다.

### ■ 성적 쾌감

성적 쾌감은 그것이 발생하고 만족을 얻는데 고유한 조건을 갖는 일종의 감각적 쾌감이다. 이는 일반적인 습관성 쾌감과 마찬가지로, 매우 일시적인 때를 제외하고는 만족을 얻지 못한다. 그것은 오히려 대체의 가능성을 극히 제한하는 반면 그와 똑같은 것을 더욱 추구하게 만든다. 이는 심리적인 개념과 거기에서 오는 이익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데 양쪽이 모두 쾌감을 느끼지 못하는 성관계, 어느 한쪽만 쾌감을 느끼는 관계는 좋은 성이라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 ■ 완전한 성

이는 철학적인 개념에 연결되는데 인간은 자신의 의도를 성취하기 위해 육체를 '사용하면서' 종종 자신의 육체와는 일체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성행위는 인간이 자신의 육체가 되는 체현의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 완전한 성행위는 각 동반자의 체현하고자 하는 욕망이 상대방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반응할 때 일어난다. 즉, 욕망에 의한 욕망의 「반사적인 상호인식」을 형성한다. 성관계에 임하는 두 사람이 모두 하나의 주체로서 능동적

으로 관계에 참여하면서 상대방의 요구와 응답에 적절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 성의 완전성의 핵심인 것이다. 러딕에게 있어서 이 완전한 성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것은 체현된, 즉 의식과 육체가 하나가 된 성이며, 성행위 참가자들 서로가 상대방을 능동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자기 일개인으로 의식과 육체가 하나가 된 상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능동적으로 요구하고 그에 의해 능동적으로 요구 당함으로써 상대방과도 하나가 된 상태의 성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의 일체, 상대방과의 일체가 동시에 이뤄지는 것은 완전성 그 자체로 연결된다.

### ■ 자연스러운 성

행동의 양태를 의미하는데 성행위를 자연적 또는 비자연적인 것으로 분류하는 근거는 전자의 형태가 진화적이고 생물학적인 성의 기능-생식-을 수행한다는 데 있다. 「자연적인 성욕」은 그 「대상」으로서 이성이 살아있는 인간, 특히 사춘기가 지난 생식기관을 요구한다. 자연적인 성욕의 목표는 생식기관의 교접이다. 자연스럽지 못한 성, 즉 도착적인 성은 이외의 관계로 여겨진다.

###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러딕의 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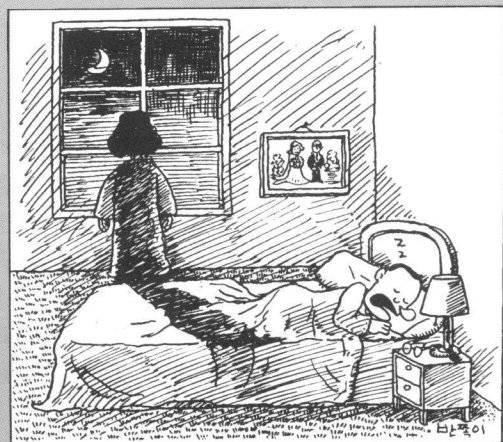
우리들에게 러딕의 이야기들은 생소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우리 사회에서 진지하게 성에 대한 철학적 논의들이 이루어진 적은

거의 없으며 따라서 비정상적인 성적 유연비어들, 왜곡된 성의식만이 판을 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논리들은 그다지 생경한 것들이 아니다. 우리들이 이야기해 온 건강한 성, 올바른 성이라는 범주에서는 다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되어 온 것들을 하나의 기준에 담아서 일목요연한 틀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 우리는 왜곡된 성문화가 현실적으로는 나쁘다고 이야기 하지만 그것이 왜 나쁜지 논리적인 근거를 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러딕의 논리는 그러한 점에서 우리에게 명확한 근거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성폭력의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 즉, 성폭력은 러딕의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더 큰 쾌감을 양쪽에게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가해자인 남성은 어쩔지 몰라도 피해자인 여성은 존엄성의 상실에서 오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다. 또한 성폭력은 완전성도 없다. 오로지 가해자 일방의 폭력만 난무할 뿐이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자연스러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하나의 도착적인 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러딕의 성에 관한 철학적 담론체계를 통해 성폭력의 폐해를 논리적으로 다루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성철학의 구조를 통해 우리는 우리 사회에 알맞는, 여성에게 적절한 성철학을 정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유**

홍은정 기자

나눔터 그림



반쪽이



# 월경이야기 (1)

**여** 성에게 매달 이뤄지는 월경은 성기능 뿐만 아니라 여성의 전신적인 건강의 척도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월경 양의 이상이나 색깔, 통증 등의 증상을 통해 해당월의 여성의 건강이 증명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여성은 다른 성지식은 제대로 알지 못해도 월경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지식이라는 것은 한달에 한번 나온다는 것, 나오지 않으면 임신될 의심해 봐야 된다는 식의 간단한 것들이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월경이 여성의 건강에 중대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자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들이다. 대부분의 여성 병은 월경이상 유무를 통해 인식되기 때문이다. 자, 그럼 월경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기로 하자.

## 1. 월경의 발생구조

자궁은 난소주기에 따라 그 내막은 같은 주기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즉, 난포호르몬은 자궁내막을 두껍게 하고 증식기를 형성하여 배란이 끝나면 황체호르몬과 난포호르몬의 작용으로 분비기로 접어들게 된다. 이를 통해 정란이 자라는데 알맞은 내막으로 변화한다. 자궁내막이 수정을 기다리면서 아기에게 폭신폭신한 침대로 변화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임신이 되지 않고, 황체호르몬이 감소하면 이 살이 썩 내막, 즉 폭신한 침대는 쓸모가 없게 되어 자궁벽에서 떨어져 나가야 한다. 이때 출혈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월경이라고 부른다. 내막은 자체의 효소로 녹아 혈액과 함께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데 월경혈은 쉽게 응고하지 않으며 응고한 것은 출혈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이다.

## 2. 난소의 변화에 따른 순환적인 과정

이어서 원시난포가 또 발육하여 난포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면 벗겨진 자궁의 내막에 세포가 증식하여 재생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를 박탈재생기라고 한다. 다시 또 증식기로 옮겨가는데 재생, 증식, 분비를 거쳐 박탈하고 또 재생하는 이 되풀이를 자궁내막은 하고 있으나 만약 임신을 하게 되면, 즉 배관에서 나온 난자가 수정을 하게 되면 분비기의 내막에 뿌리를 내려 내막은 두꺼운 채로 떨어져 나가지 않게 된다. 즉, 아기를 위한 폭신한 침대가 고정되는 것이다. 신체적으로 임신의 징후가 나타나고 월경은 멎게 된다. 이렇게 자궁은 오직 난소의 변화에 따라 주기성의 변화를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뇌하수체나 난소, 자궁자체에 무슨 변화가 생기면 어떤 원인이든 월경이상이 오게 된다.

## 3. 월경주기의 정상적인 범위

자궁내막은 어떠한 시기라도 출혈할 수 있으며 난소가 규칙적으로 호르몬을 자궁에 보내고 있어도 그 양적 관계로 뜻하지 않은 시기에 출혈하는 수도 있다.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과도한 다이어트를 할때도 월경이 멎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간뇌의 이상작용으로 뇌하수체의 호르몬 분비가 억압된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사춘기에는 배란이 없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자궁내막은 분비를 거치지 않고 증식기에 출혈하는 예도 있다. 월경에는 상당한 개인차가 있는데 정상 월경을 이야기하자면, 먼저 월경주기가 나온다. 즉, 월경의 제1일부터 다음 월경의 전날까지의 일수를 월경주기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28일형이 많다고 하지만 30-32일형도 많으며, 25-36일의 범위까지는 정상적인 주기라고 보고 있다. 매월 다소의 변동이 있는 것이 보통이고, 7일에서 9일까지 정도의 늦고 빠름은 정상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3-4일 차이가 있어도 월경 불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는 월경불순이 아닌 것이다.

## 4. 월경의 양·지속일수·증상

월경의 지속일수는 3-5일로 여겨지지만 정상범위는 2-7일로 잡고 있다. 일단 멈춘 후에 1-2일 소량의 출혈을 보는 사람도 많은데 이것도 정상적인 현상이다. 월경의 양에 있어서도 엄청난 피가 나오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사실상 피는 20-22cc 정도의 소량이라고 한다. 평상시의 월경과 비교해서 많고 적음을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하는데 색은 암적색이며, 멍치지 않으며 응혈이 섞이지 않는 것이 보통이지만 응혈이 섞여 있더라도 꼭 이상은 아니다. 다만 선홍색의 출혈은 정상적인 월경이 아니라고 한다. 증상으로 대다수의 여성들은 월경 1-2일직전이나 월경중에 다소의 하복통이나 요통을 느끼며 불안감이 증폭되고 졸음이 온다고 한다. 이러한 증상이 심하면 병적인 것이겠지만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없는 한에 있어서는 그저 월경이 시작되면 「좀 쉬어야 하는 시기」로 여기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5. 초경과 폐경의 연령

월경의 시작인 초경은 10-17세 정도까지를 정상으로 여기고 있으나 최근에는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서 10살 미만에서도 초경이 이뤄진다고 한다. 폐경은 대개 40-55세 정도로 여겨지는데 30대에 폐경되는 것은 신체적인 병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폐경이 늦어지는 것은 그다지 걱정할 것이 못되



지만 간혹 자궁근종이 있는 사람이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 6. 무월경과 원인

위에서 이야기한 정도가 정상월경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이외의 증상이 이상월경으로 여겨지는데 먼저 무월경의 증상이 있다. 무월경에는 성숙기가 되어도 한번도 월경이 없는 선천적인 것과 월경이 나오다가 임신 이외의 원인으로 무월경이 된 2가지의 종류가 있다. 무월경의 원인으로는 간뇌의 이상, 뇌하수체의 이상, 난소의 이상, 자궁의 이상 등 4가지가 논의된다. 즉, 월경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간뇌가 뇌하수체를 자극하면 뇌하수체에서 난소를 자극하는 호르몬이 나오고 이에 의하여 난소에서 자궁내막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나와 자궁이 그에 반응하는 4단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간뇌는 사람의 감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상의 변화 즉, 스트레스나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등에서 야기되는 고뇌는 무월경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전신의 기력이 쇠약해지는 질병을 앓을 경우에도 월경이 유보되는데 이때는 병이 낫고 기력이 회복되면 다시 월경이 시작된다. 어떠한 경우이든지 무월경의 증상이 6개월 이상 방치되면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즉시 전문

의와 상의해야 한다.

한달에 한번 여성의 자궁에서 이뤄지는 의식, 축제인 월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그 한달은 우울한 달이 될 것이다. 기쁜 생활을 하기 위해,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주위 사람들, 가족의 올바른 지식 습득과 도움이 필요하다. ♀

### 편집자 주

「여성과 몸」은 여성의 신체에 관한 지식을 올바로 전달하면서 궁극적으로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다음호에는 월경이야기(2)를 게재할 예정인데,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이나 통념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 낙수

미국 최고의 토크쇼 사회자이며 다이어트의 신화를 이룩하는 등 여러모로 인간승리를 보여준 오프라 윈프리(OPRAH WINFREY).

그녀는 미시시피의 코시우스코 농장에서 사생아로 태어나 그녀를 종종 구타하던 할머니로부터 버려져, 9세때 밀워키에 있는 그녀의 어머니 베니 타 리한테 보내졌다. 여기서 9살부터 14살까지 그녀의 십대 사촌으로부터 여러번 성적학대를 당하고 가족의 친구와 삼촌으로부터 학대를 받았다.

14세때 그녀는 조산아를 낳지만 아기는 죽었다. 그녀는 가출을 했고 그 후 몇차례 범죄 혐의를 받고 소년원으로 보내졌으나, 침대가 모자라 완고하고 엄한 아버지, 버논 윈프리에게 보내진다. 그곳에서 오프라는 많은 어려움과 맞서서 힘차게 자라났고 그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게 된다. 아버지는 그녀의 인생에서 커다란 전환점이었고, 항상 자신감과 믿음, 사랑을 주어서 그녀를 바른길로 인도해 주었다. 그녀가 19세에 직업으로 택한 방송은, 그녀에게 또다른 문제를 안겨 주었는데 방송국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자 점점 살이 찌기 시작 한 것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체중이 무섭게 불어나기 시작 한 것이다. 그녀의 고민은 성적학대의 상처와 스트레스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생긴 비만이라고도 할 수 있는 데 스트레스가 쌓이면 음식으로 해

소를 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살이 찌기 시작했을때 다른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 같았고, 그래서 두려움이 생겼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생각과,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이었다. 그녀는 또, 백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자신감을 잃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자격지심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자격과 권리를 원했었다.

그녀는 결혼후에도 오프라 윈프리라는 이름을 절대 바꾸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결혼문제에 대해서 그녀는 꼭 남자가 있어야만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녀는 미국의 인종차별주의와 싸우는 것에도 책임을 느끼는데, 그래서 그 방면의 일을 하는 자선기관을 돕고 있고, 강간문제를 다루는 센터와, 아틀란타에 있는 흑인남성을 교육하는 기관을 돕고 있기도 하다.

그녀는 어느 날 성적학대에 대한 토론 중 울음을 참지 못하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성적학대와 비만에 대한 분노, 수치심을 터뜨리고 말았다. 세월이 흘러 그녀가 맞았다고 생각했던 어린시절의 아픈 추억이 생각보다 상처가 깊었던 것이다. 그녀는 이런 아픈 기억들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른 사람 못지않게 그녀 자신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성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일하는 여성의 자아 찾기

# 네온 속으로 노을지다

최지영 (5기 상담원)

『네온 속으로 노을지다』는 92년도에 페미니즘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그대안의 블루』의 이현승 감독 작품이다. 감독은 의식적으로 여성문제에 입각한 영화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다. 그리고 자신을 공공연하게 페미니스트라고 피력한다. 그러한 감독의 두번째 영화 『네온 속으로...』에서 끝말에 제시하는 주인공의 결단이 대안으로서 타당성이 있는지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대안의 ...」의 경우에는 남자 주인공(안성기分)이 여자 주인공(강수연分)을 전적으로 대상화하여 그녀의 아직 미개한(?) 부분 - 그것이 재능이건, 여성으로서의 사회화된 억압적 자기정체성이건 - 을 개척하고 계몽하려고 애쓴다.

특히 남자주인공의 입을 통해 일관성있게 「사랑」이 얼마나 허구적이며 여성을 옹아매는 몹쓸 이데올로기인지를 설명하지만 너무나 당연한 말이면서도 너무나 도식적으로 그것도 남성을 통해 듣는 교훈은 무언가 어색한 느낌을 준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가 없다. 결말에 여주인공이 대안으로서 선택하는 「이혼」 또한 자체만으로는 완전한 홀로서기의 최선의 방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 굳이 의미있다면 여성 스스로가 결단을 내리고 삶의 의미를 부여했다는 점이다.

반면 「네온속으로 ...」는 「그대안의 ...」에서의 도식적이고 교과서적인 냄새가 상당히 순화됐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감독의 메시지는 여전히 영화 전체에 걸쳐 있다. 김규환(문성근分)은 현대자본주의의 메카니즘을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광고를 제작하는 감독이다. 그는 순간적이고 허구적인 이미지의 세계속에 살면서도 이미 포기한, 아니 어찌면 포기 못한 항구적인 남주인공이 말하던 방식과는 틀리게 아주 자조적이기까지 한 사랑에 대한 불신을 들을 수 있다. 「사랑이란 어디에든 없는거야, 혹 있으면 광고속이나 있을까? 연인한테 사준 초콜렛이나, 남편의 사랑과 함께 끼는 고무장갑 같은거 말이야!」

우리는 스스로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속에 얼마나 많은 허구성과 대책없는 낭만이 곁들여져 있는지 알고 있다. 하지만 사랑의 문제는 인류의 거의 전역사와 함께 우리의 주 관심사요 생활이었기에 규환같은 패배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달고 포기하는 사람은 사실 영화적 구성에나 대표적으로 나올 법하다.

규환과는 삶에 대한 태도가 전혀 다른 이상민(채시라分)은 처음

에 영세한 잡지사 편집일을 하며 사랑도 병행하지만 나약한 그녀의 연인은 그녀를 남겨두고 무책임하게 훌쩍 떠나고 잡지사도 문을 닫는다. 광고회사로 직을 옮겨서 다시 일을 시작하는 그녀의 모습은 스피디하고 감각적인 광고계의 생리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상민은 시적인 감수성과 순수성을 광고에 쏟아 붓는다. 그리고 순수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지만 규환은 그녀를 비웃으면서 동시에 그러한 모습에 연정을 느낀다. 솔직한 광고를 추구하는 그녀는 주위 남성들의 공격을 받지만 상사의 지위에 힘입어 그들과 경쟁하고 결국 남성사회와 자본주의 광고의 생리를 깨닫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 논리를 수궁해야 함을 느낀다.

또한 경쟁적인 회사 분위기 속에서 여자를 깎아 내리려는 남자들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그대안의 ...」에서 여성이 처한 사회적 위치가 매우 개념적으로만 표현했다면 「네온속으로...」는 직장내의 문제를 일상적인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이제는 주인공의 지원자가 「그대안의 ...」에서 처럼 냉소적인 남성이 아닌 여성으로서의 고충을 너무나 잘 아는 여자 상사인 서지원(양금석分)이 등장한다. 사실 우리사회에서는 여성간의 자매애와 협력이 무엇보다도 큰 동력이 될 수 있음에도 그러한 노력들이 부족할 뿐더러 불신의 벽이 남성에게보다 여성에게 훨씬 크다. 이런 면에서 볼때 『네온속으로 ...』에서는 피상적인 페미니즘의 표방이라는 원망에서 좀 물러설 수 있게 된 것 같다.

한편 문성근은 광고 CF감독으로 현실에 타협하지 못하고 정신적인 방황을 하다가 객사한다. 결국 소비를 위해서 허구를 창출해 내는 그의 작업과 삶이 그 결과로 쓰레기라는 산물을 낳고 그의 인생 또한 쓰레기와 함께 마무리 한 걸까?

상민은 규환의 아이를 낳고 기른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여성이 아이를 낳는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고 교육하는 것은 매우 신성하고 중요한 일이다. 감독은 이번에 여성이 갖는 모성으로서의 역할에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모양이다. 그러나 상민의 용기있는 결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고 이전의 즐거리와 약간의 비약적인 결론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모성에 거는 기대감 이후의 실천적 대안이 무엇일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

**새 자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우리 상담소에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사람들 속에서도 이번에는 자문위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문위원은 상담소에서 법적·의료적·상담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담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문위원은 모두 103명으로 상담분야 8명, 법률분야 16명, 의료분야 43명, 연구분야 12명, 홍보출판분야 13명, 재정분야 9명, 감사분야 2명입니다. 신년 자문위원 모임을 통해서 새 자문위원이 되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도서기증】**

- 그린비출판사 : 그런 것 ..... 물어봐도 돼요
- 여성신문사 : 직장에서 플레이보이를 봐도 됩니까
- 정정기: 삼국통일과 한국통일 上, 下  
여자란 무엇인가
- 최영애 : 천황의 면죄부
- 임순영 : 한국단편소설
- 장윤경 : 외국시집
- 최지영 : 만화전집
- 강정희 : 중산층 주부의 여가에 대한 사례연구 (논문)
- 이경미 : 성의 자율성과 순결 이데올로기 (논문)
- 홍은정 : 부부의 성역할 분리에 관한 연구 (논문)

**【물품기증】**

- 김명륜, 남순열, 박병헌, 박춘선, 신아영, 안소연, 연민이, 엄혜승, 유정순, 이계중, 장광미, 정경자, 최선규, 홍진선

**【기부금】**

- 김정희, 박춘선

- 상 담 : 박 애 선 (숙명여대 교육심리학과 교수)
- 법 률 : 이명숙, 이상경, 이향아, 장재호, 장철우(변호사)
- 의 료 : 김 병 후, 김 정 일 (신경정신과 전문의)
- 연 구 : 김 인 수 (부산교육대학 교육학과 교수)  
이 용 재 ((주) 한국 통계 공학 대표이사)  
정 병 호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 홍보출판: 김 응 숙 (한국방송개발원 방송 정책 연구실 선임연구원)  
김 철 기 (새누리 신문 사장)  
전 여 옥 (미래뉴스TV 제작주관)  
최 정 현 (시사 만평가)
- 재 정 : 문 선 경 (환경운동가)

**새내기 나눔터 기사를 소개합니다.**

- 연민이(홍보출판부 부장) 장기집권(?)의 신화.
- 김병준(정치부/Computer 담당)  
홍보출판부의 「Think Tank」
- 신정아(사회부기자/주부리포터) 환경문제에도 앞장서는 이 시대의 「그린 우먼」
- 안승하(편집부/사진부기자) 외모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경쟁상대가 없어요.
- 이규화(방송/홍보부기자) 다채널 시대에 걸맞은 홍보출판부의 얼굴.
- 이진상(문화/출판부기자) 귀여운 용모속에 숨겨진 섬세한 예술적 감성.
- 홍은정(홍보출판부 차장/학술전문기자)  
신도불이를 실천하는 진정한 진보주의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새로운 나눔터 회원 】**

김동조, 김수진, 김한주, 대구여성회, 대한 YWCA연합회 프로그램 사회문제 위원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인천카톨릭 사회복지회, 인천여성의전화, 정해복지연구회, 지세민, 한신대학교 총학생회실 인권여성위원회

**【 새로운 회원 】**

김혜경, 권나양, 노미경, 박애선, 박종민, 박현이, 안병희, 안승하, 엄혜중, 옥복연, 이은정, 이희숙, 이상경, 이정아, 유정순, 조인옥, 정지원, 정영숙, 지혜정, 최혜선, 최지영, 채정숙, 홍은정

**축하합니다**

- 유학 : 이미경, 정경자, 장광미(함께 호주 시드니)
- 취업 : 김명륜 (위기센터 야간 간사) ; 여성단체연합간사  
이정아 (5기 상담원) ; 경주수련원  
최지영 (5기 상담원) ; 3월부터 NGO간사
- 결혼 : 홍은정 (6기 상담원) ; 4월 5일 결혼

**만든이 : 김병준, 신정아, 안승하, 연민이, 이규화, 이진상, 장윤경, 홍은정**

# 상담은 이렇게 합니다

## ■ 상담전화

일반상담: 02) 529-4271~2  
위기센터: 02) 573-1888



## 유한국 성폭력 상담소

일반상담: 02) 529-4271~2

위기센터: 02) 573-1888

법률 · 의료 · 심리상담

강간을 비롯한 성추행, 성적희롱, 음란전화 등의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정신과의사·산부인과 의사·법조인·경찰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상담시간

-일반상담 : 월 ~ 금, 오전 10 - 오후 5시

토, 오전 10시 - 오후 1시

-위기상담 : 일요일 · 공휴일 제외 24시간

-면접상담 : 화, 목, 오후 2시 - 5시

-서신상담

## 여러분의 조그마한 정성을 기다립니다

- **상 담 원** : 본 상담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여성학 교육 / 상담원 교육)을 수료하면 상담원으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 **나 눔 이** : 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여러가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보조, 자료정리, 번역,...
- **위기센터지킴이** : 위기센터에 피해자가 전화를 하면 상담원, 병원, 경찰에 연결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물 품 기 증** : 사무에 필요한 물품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 **후 원 회 원** : 후원회원이 되면 소식지 「나눔터」와 자료들을 받아 볼 수 있으며 상담소 행사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비는 고통받는 피해여성들을 위해 쓰입니다.

## ■ 온라인 구좌번호

국민은행: 009-01-1176-632    성폭력 상담소

농협: 037-01-194301    성폭력 상담소

## 소식지 「나눔터」와 함께 하세요!!

후원 회원으로 가입하시거나 1년 구독료 5천원을 위의 온라인 번호로 납입하신후 본 상담소에 주소를 알려 주시면 계간 [나눔터]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